Q 한강방어선 전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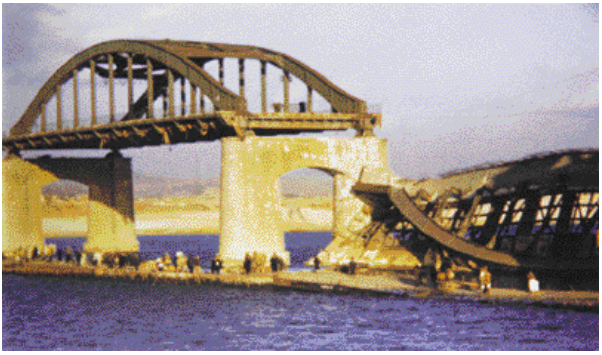
A 한강교가폭파된6월 28일 오전부터북한군의전차가대거 서울 시내로진입하기시작했다. 그러나전차를앞세워거칠 것 없는공격을감행했던북한군도한강교폭파로인해 한강 북쪽에서일단 멈출수 밖에 없었다.

한강교가파괴된후 서울 북쪽에배치되어있던 국군 장병들은지휘체계가와해된상태에서나룻배와같은극히 제한된도하수단을이용하거나 모든장비를버리고헤엄을쳐 한강을건넜다.

그리고한강 이북에서철수해온장병들이한강 남쪽 뚝에서전열을정비하게됨으로써자연스럽게한강 남안을따라 방어선이만들어졌다. 그러나 병력과장비가제대로갖추어진방어선은아니었다. 한강이주는 천연적인장애물의잇점을최대한활용해미군 지원병력이도착하는데필요한 시간을확보하는것이 국군 지휘부의최대희망이었다.

한강방어선 전투

6·25전쟁에서 한강방어선은 ‘ 서울 동부의 광나루에서 서북쪽으로 김포반도 북단 ’에 이르는 한강 남쪽 전체를 연결하는 선이다. 그러나 협의의 한강방어선은‘ 노량진에서 영등포까지 ’를 말하는데, 그것은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폭파된 한강 인도교

아군의 주력이 그곳의 방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한강방어선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육군본부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고, 김홍일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어려운 상황 하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김 소장은 무질서하게 철수하는 장병들을 수습하고, 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사기를 되살리는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미군 참전'이라고 크게 쓴 간판 수십 개를 만들어 길목마다 세우게 했다. 그리고 피난민과 함께 후퇴하던 낙오병들을 500명 단위의 '혼성대대'로 편성한 후 '혼성 수도사단', '혼성 제7사단', '혼성 제2사단'으로 급조했다. 이렇게 해 국군은 주력부대들이 흩어진 지 불과 10시간 만에 3개 사단으로 재편성되어 한강 남쪽의 새로운 방어선에 배치되었다.

한강방어선에 배치된 부대들은 3개사단이라고 하지만 급조 편성된 '혼성부대'들이었다. 사단이라고 해야 병력상으로는 정식 연대 규모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비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105㎜ 곡사포는 한강을 건너면서 모두 버렸기 때문에 1문도 없었고, 박격포 2 4문과 기관총 2 3정 뿐이었다. 박격포마저도 포신만 있고 다리가 없는 등 반신불수

가 대부분이었다.

한강선 방어임무를 맡은 김홍일 사령관의 작전개념은 가용한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해 적의 전진을 3일 이상 지연시키는 것이 전부였다. 곧 지원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군이 도착하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맥아더 원수와 어느 병사의 대화

6월 29일, 혼성 수도사단이 지키고 있던 영등포 지역에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가 나타났다. 그의 방문 목적은 한국의 전황을 직접 살펴보고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수행원과 함께 전용기 편으로 일본에서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후, 한강방어선을 시찰했던 그는 쌍안경으로 한강 일대를 살펴본 후 개인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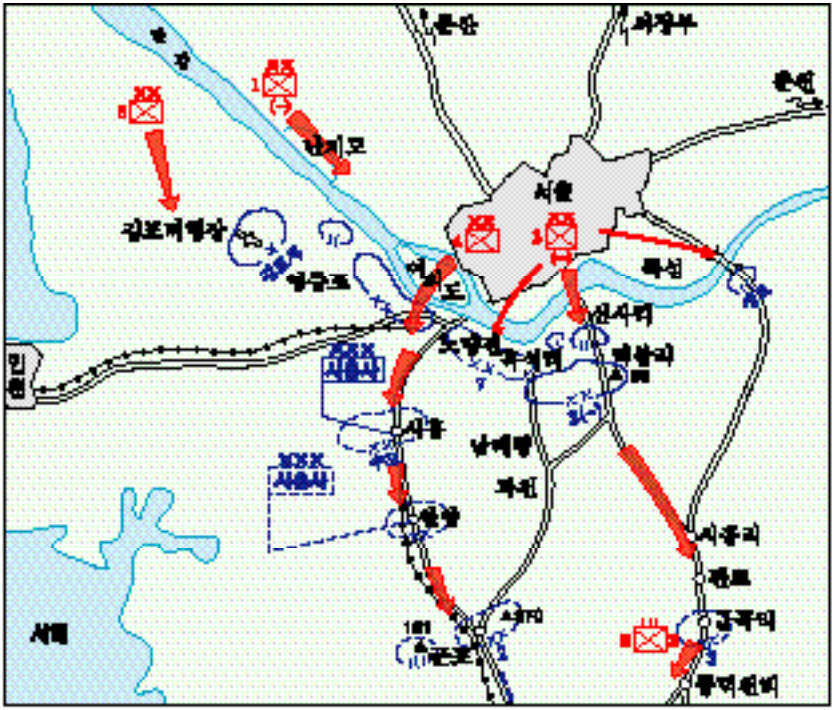
한강방어선에서 전쟁의 실상을 직접 살펴보는 맥아더 원수와 그 일행

서 진지를 지키고 있는 병사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병사!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병사는“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관이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제가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통역으로 부터 그 말을 들은 맥아더 원수는 감동한 듯,“ 이 병사에게 전해주게.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지원병력을 보내줄 터이니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싸우라고! ”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병사의 손을

한강방어선의 배치와 북한군의 공격 상황도



잡고 격려했다. 그리고 맥아더 원수는 그 병사와의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한편 북한군은 며칠동안 강을 건너기 위해 산발적인 도하를 시도했다. 노량진 지역에서는 6월 30일부터, 영등포 지역에서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도하공격을 감행했다. 아군 방어부대들은 적의 포격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무엇보다도 전차 공격이 없었으므로 잘 버틸 수 있었다.

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방어선 전투는 ‘ 적과의 싸움 ’이라기보다 오히려‘ 시간과의 싸움 ’이라고 할 수 있었다. 즉, 적을 격멸하고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원군의 도착을 기다리는 시간을 얻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다.

국군은 한강방어선에서 당초 3일간을 목표로 적의 도하를 저지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6월 28일부터 그들의 전차가 한강을 도하한 7월 3일 아침까지 6일 동안이나 한강변을 고수했다. 이로써 국군이 흩어진 부대를 재편성하고, 건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에 필요한 황금같은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1. 한강방어선에서 국군의 병력과 장비가 불충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 국군이 한강방어선을 6일이나 지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